

2016년 공연예술스태프지원사업 심의결과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공연예술단체 및 소공연장(500석미만) 소속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여 공연예술창작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 (2014년 경제장관회의, 예술계 일자리 안정화 및 창작지원 목적 신설)

나. 추진실적

- 2014년 : 기획경영분야 132명, 무대예술분야 100명 (232명)
- 2015년 : 기획경영분야 136명, 무대예술분야 98명 (234명)

다. 2016년도 사업개요

- 2016년도 사업예산 : 4,217백만원
- 기획경영분야 : 단체별 1~3명 전문인력의 인건비(평균임금)지원
- 4대보험가입 전년 6월이상 근로인력 기준 30%내 인원수 산정
- 무대예술분야 : 극장별 1~2명 인건비 (월150만원) 지원
- 4대보험료 및 추가지급 인건비는 단체 자부담

□ 심의경과

가. 일시

- 무대예술분야 : '16.6.16(목),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15:00-17:00
- 기획및경영분야 및 통합심의 : '16.6.17(금), 예술가의집 세미나1,3실 15:00-18:00

나. 심의위원

구분	기획 분야	무대 분야	성별	현 직	비고
연극/ 뮤지컬	최준호	최준호	남	예술의전당 예술감독, 한예중 연극원 교수	기획/무대 통합심의
	김희철		남	중구문화재단(충무아트홀) 공연기 획 본부장	
음악	박재성	박재성	남	한국음악학회 회장 역임, 한국서	기획/무대

				양음악이론학회 회장 역임, 아시아작곡가연맹(ACL) 본부 및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역임	통합 심의
	태승진		남	예술의전당 전 음악사업부장, 현 고객서비스단장	
무용	김이경	김이경	여	이화여대 무용과 및 동대학원(석전)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고양문화재단이사, 무용예술학회이사	기획/무대 통합 심의
	장선희		여	한국발레협회 이사 장선희 발레단 대표	
전통 예술	한상일	한상일	남	동국대 교수, 성남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기획/무대 통합 심의
	이석규		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팀장	
종합	송경희		여	문화예술학 박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15년도 동사업 전수현장평가총괄)	기획/무대 통합 심의
		최윤우	남	한국소극장협회 사무국장 역임, 공연 평론가 (*소극장현황전문성)	
계	9명	5명			

□ 심의기준 및 방향 (심의위원회 심의총평)

□ 기본방향

가. 이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실태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공연예술 창작단체 및 공연예술 전문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특히, 피고용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여 일자리 안정화와 창작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만족도가 높음

나. 이 사업은 창작단체 소속의 기획경영분야 인력 지원 부문과, 500석 미만 공연예술 전문 공연장의 무대예술(무대기술스텝) 인건비와 교육(사이버교육 등 필요최소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의 신청 수 등 수요를 반영하여 '14년도와 '15년도의 경우 대략 60 : 40 정도의 비중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한 추세를 반영 60 : 40으로 우선 가안을 두어 배정하되, 통합심의 과정에서 최종 조정함

다. 올 해도 기획경영분야 인력 지원 부문과 무대예술(무대기술스텝) 지원 부문을 기계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준과 사업의 소기의 성과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심사 관점에서 진행하였고 특히, 기획경영분야는 신청수가 201개에서 210개로 증가된 반면, 무대예술 분야는 신청단체수 기준으로 120개에서 106개로, 공연장(관수) 기준으로는 134개에서 117개로 감소된 상황을 반영하여 기획경영분야 인력 지원 부문과 무대예술(무대기술스텝) 지원 부문의 예산과 지원인력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음.

라. 특히, 분야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지원인력 한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음.

□ **공통심의 기준**

가. 심의지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예기금지원사업의 표준적인 심의 기준에 1차적 근거를 두고, 각 지표의 구체적 적용과 평가에는 동 사업의 취지에 따라 평가 착안 사항을 두어 평가를 진행함

< 공통 심의기준 >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인력 활동 계획 구체성, 충실성 ○ 사업이해도, 수행의지
집행 단계	사업수행 능력 (40%)	○ 사업운영 역량 보유 정도 ○ 사업 수행 여건
성과 단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 예상정도 ○ 인력의 경력 개발 기여 예상 정도

나. 상기, 공통심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획경영분야 인력 지원 부문과 무대예술(무대기술스텝) 지원 부문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심의 착안사항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하여 채택, 반영함

□ **(1차, 1일차) 무대예술인력 분야 심의경과 및 결과**

가. 심의기준의 구체화 및 착안사항

(1) 충실성 및 타당성 : 이 사업이 단체지원 보다 인력지원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인력의 역량 육성 지원 가능성을 감안하였으며, 14년, 15년 지원했던 단체의 경우는 2년간 시행한 현장모니터링 평가와, 행정평가 (교육참여도 등 포함된)결과도 참조하였음. 그에 따라 평가결과 "C"등급이 하나 이상인 경우, 지원 후순위로 검토하였음. 신규 신청 단체의 경우, 그간의 활동 경력, 극장 규모와 운영형태(대관, 기획비중 등)을 검토함. 이때, 대관과 자체기획 비중에 대해 확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기획으로 운영일을 100% 운영하더라도 상업성 짙은 공연을 연중 (오픈 런)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대관으로 100%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대관료로,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을 올리고 있는 극장도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획과 대관의 비중을 고려하되, 그 내용을 함께 고려하였음. 다만, 대관비율이 높은 경우 자체기획 노력이 부족한 점은 심의에 반영함

(2) 사업수행 능력 : 극장의 소유구조, 연간 수입 및 지출규모, 극장의 객석수와 건물의 물리적 현황, 입지 등을 고려하였음. 이때, 연간 수입 및 지출규모의 심의 적용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음. 지나치게 영세한 경우 (예: 연 운영비 5천만원 이내) 영세한 단체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이 배치될 경우, 여건에 비추어, 목적인 정도의 인력

에 대한 역량의 개발 지원 여력과 자원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영세성을 단순히 적용하기 보다는 배경과 사유 (신생여부, 예술성 중심, 입지 조건 등)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하였음.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재정여력 등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극장 대관수입 자체가 주된 운영 목적이거나 상업성 강한 공연으로 재정구조가 안정화 된 결과라면 후순위 단체로 분류하였음.

- (3)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기준으로서 세부적 기준으로서 첫째, 예술적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특히 신청서에 의무 제출토록 한 최근 3년간의 공연 실적을 토대로, 예술적 지향성과 기여 정도를 우선 검토하고, 두 번째, 지역 사회에서 극장이 기여한 사회적 기여 측면도 반영함. 관련하여, 수도권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 공연장들을 공연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함.

나. 심의방법(절차)

- (1) 장르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로, 분야별 심의를 진행하고 2차로 장르간 통합심의를 진행함. 지원 적격 극장의 선정은 상기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적격 극장을 선발함
- (2) 장르별 선정 목표수 설정 : 연극분야가 117개 공연장 (단체수기준 106개)중 92개관 (단체수 기준 82개)로서 각 79%, 77%에 해당하므로, 타 분야 극장에 대해 결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결격 극장 외, 적격 극장은 우선 선발 후, 연극분야 심의를 추진함
- (3) 극장별 인원의 배정기준 : 신청인원수를 반영하되, 극장의 분관 등 복수 극장 보유여부, 객석수, 연간 사업총액 등을 반영, 규모가 작은 극장은 1명, 규모가 큰 극장은 2명을 배치 기준으로 설정함 (동송아트센터와 아트시어터 원 극장은 2016년도 12월까지 예술위원회가 일괄 대관하여 공연예술 단체에 공간을 제공하는 공영극장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원수 예외 인정)

다. 심의결과

	'15년도			'16년도		
	단체(극장)기준		배정인원	단체(극장)기준		배정인원
	신청(비율)	선정(비율)		신청(비율)	선정(비율)	
연극	95(80%)	53(71%)	66	83(79%)	55(78%)	66
무용	5(4%)	5(6.5%)	8	7(6%)	6(8%)	8
음악	14(11%)	12(16%)	18	12(12%)	7(10%)	11
전통예술	6(5%)	5(6.5%)	6	4(3%)	3(4%)	3
계	120(100%)	75(100%)	98	106(100%)	71(100%)	88

□ (2차, 2일차) 기획경영전문인력분야 및 양 부문 통합심의

가. 장르별 지원단체수 배정 기준 설정

- (1) 전일, 실시한 무대예술(스텝) 분야 선정단체수는 71개이며, 단체당 평균 1.5명 배치예정을 반영, 사업 총 예산중 약 35% (1,353백만원)를 배정하고 적정성을 우선 평가함

구분	무대분야 2016년 선정단체수		
	신청수	선정수	비율
연극	83	55	77.5%
무용	7	6	8.5%
음악	12	7	9.9%
전통	4	3	4.2%
합계	106	71	100.0%

(2) 총 예산중 65%(약 2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경영 분야에 배정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분야별 선정 단체수 최대치 안을 설정함. (15년 통계치 단체당 1.26명 지원 가정)

- 장르별 선정 한도 단체수 배정기준 : 전년비율 40%, 신청비율 40%, 전공자수 10%, 공연단체수 중 장르별 비중 10%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장르별 선정단체 목표 수를 설정 (공연단체수는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수집한 모집단 기준)
- 배정안(분야별 한도) : 연극 54 / 무용 13 / 음악 30 / 전통예술 31개 이내

○ 지원단체수 실적

구분	14년 지원단체수		15년지원단체수		단체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연극	38	28.8%	41	30.1%	79	29.5%
무용	9	6.8%	11	8.1%	20	7.5%
음악	13	9.8%	26	19.1%	39	14.6%
전통	23	17.4%	30	22.1%	53	19.8%
합계	83	100.0%	108	100.0%	191	100.0%

○ 졸업자 및 공연단체 수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조사대상 모수, 복합단체 제외)

구분	전공졸업자(2014기준)		단체수(2015년조사)	
	인원수	비율	수	비율
연극	1,572	18.6%	592	32.4%
무용	941	11.1%	329	18.0%
음악	1,663	19.7%	520	28.5%
전통	1,489	17.6%	385	21.1%
합계	8,459	100.0%	1,826	100.0%

○ 2016년도 신청단체 수 및 선정 한도 수

구분	2016신청수		단체수	선정목표수
	신청수	비율	비율	수
연극	103	49.0%	42.2%	54
무용	14	6.7%	10.3%	13
음악	49	23.3%	23.3%	30
전통	44	21.0%	24.2%	31
합계	210	100.0%	100.0%	128

(3) 장르별 1차 선정 목표 수 : 각 장르별 최대 목표 수 안에서, 4대 보험 가입서류 등 지원 필수 조건 입증자료 미제출 단체에게 자료보완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후보단체 선정 (장르별로 3개 단체 내외 예비 후보단체 설정)

○ 장르별 선정 목표(잠정안)

연극 51 + 후보 3 / 무용 10 + 후보3 / 음악 27 + 후보3 / 전통예술 28 + 후보3

나. 심의기준의 구체화 및 착안사항

(1) 충실성 및 타당성 : 이 사업이 단체지원 보다 인력지원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인력의 역량 육성 지원 가능성을 감안. 14년, 15년 지원했던 단체의 경우는 2년 간 시행한 현장모니터링 평가와, 행정평가 (교육참여도 등 포함된)결과도 참조 반영. 그에 따라 평가결과 "C"등급이 하나 이상인 경우, 지원 후순위로 검토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C"등급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성 면에서 지원필요성이 있을 경우, 선정하되, 인력운영 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신규 신청 단체의 경우, 그간의 활동 경력, 단체 규모와 활동성과 등을 검토

(2) 사업수행 능력 : 단체의 소유구조, 법인인 경우 법인격, 연간 수입 및 지출규모, 공연활동 성과 등을 고려. 연간 수입 및 지출규모의 심의 적용 영세한 단체 지원의 필요성과 영세단체 지원 시 목적한 정도의 인력에 대한 역량의 개발 지원 여력과 자원이 부족할 개연성도 존재함 단체의 규모를 단순히 적용하기 보다는 배경과 사유 (신생단체 여부, 예술성 중심,입지조건 등)를 파악하여 종합 반영.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재정여력 등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창작성, 예술성 보다는 상업적 활동에기인한 것이라면 후순위로 평가

(3) 발전기여도 및 과급효과

- 예술적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아울러 상업성 위주 단체는 후순위로 평가
- 창작 단체 우선 선정 : 창작단체 > 상설축제조직 = 기획단체 > 단순 협회, 협의회 성격 단체 > 상업적 활동 우선 단체 순으로 평가
- 사회적 기여도 반영 : 해당 장르 발전 기여도, 지역 활동 단체의 경우, 지역 여건과 지역에서의 기여도 반영
- (기타) 기획분야와 무대예술 분야 모두 신청한 단체는 종합, 심의 (지원인원조정)

(4) 단체별 인원배정기준 : 신청인원 내에서, 규모(4대보험가입자수)x30%내에서 최대 3명

나. 심의방법

- (1) 1단계 : 상기 배정 안에 따라 개별 장르별 심의 (장르별 2인 심의위원 합의 심의)
- (2) 2단계 : 통합조정 : 장르별 2인 심의위원 합의안을 전체 심의위원이 통합 검토,확정

다. 심의결과

	'15년도			'16년도		
	단체기준		배정인원	단체기준		배정인원
	신청(비율)	선정(비율)		신청(비율)	선정(비율)	
연극	96(48%)	41(38%)	55	103(49%)	53(42%)	82
무용	18(9%)	11(10%)	16	14(7%)	13(10%)	18
음악	41(20%)	26(24%)	30	49(23%)	30(24%)	48
전통예술	46(23%)	30(28%)	35	44(21%)	30(24%)	40
계	201(100%)	108(100%)	136	210(100%)	126(100%)	188

□ 심의결과 선정 단체수 및 배정인원

가. 2016년도 총괄현황

(단위:명, 천원)

분야 (장르)	기획경영전문인력 분야				무대예술전문인력 분야			
	단체수		지원 인원수	지원결정액	단체수		지원 인원수	지원결정액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연극	103	53	82	1,111,000	83	55	66	1,017,000
무용	14	13	18	237,000	7	6	8	123,000
음악	49	30	48	614,000	12	7	11	168,000
전통	44	30	40	519,000	4	3	3	46,000
계	210	126	188	2,481,000	106	71	88	1,354,000

나. 전년비교

(단위:명)

분야	'15년도			'16년도			
	기획인력 (인원)	무대인력 (인원)	소계	기획인력 (인원)	무대인력 (인원)	소계	전년비 (증가인원)
연극	55	66	121	82	66	148	27
무용	16	8	24	18	8	26	2
음악	30	18	48	48	11	59	11
전통예술	35	6	41	40	3	43	2
계	136	98	234	188	88	276	42